#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8(토) ~ 9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및 앞뜰

## '친구' 가 되어 주십시오

▶ (사) '사랑의 친구들' 은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인권존중, 평화증진,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 '사랑의 친구들' 에 대한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 여러분의 지원은 후원사업에 100퍼센트 쓰입니다. 소수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운영비로 지원되는 일정금액만 사용됩니다.
(회원서 작성시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경제적인 지원 외에도 자신의 시간과 전문성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회비 납부방법으로 지로를 선택하실 경우 지로용지가 회지 발송시 함께 발송됩니다.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용지를 이용하여 납부하실땐 지로번호와 연락처를 꼭 적어 주세요. (지로번호 : 6955942)

▶ **회비납부계좌**
예금주: (사) '사랑의 친구들'
■ 사업후원 : 외환은행 211-13-07835-6
한미은행 531-00455-245
■ 운영후원 : 한미은행 531-00437-243
■ 문의전화 : (02)777-5075~6

절취선

**일반회원 가입신청서**

이 름: ( 남 · 여 )

생년월일:

자택주소: (우편번호: )

자택전화: 핸드폰:

직 장 명: 부서명:

직장주소: (우편번호: )

직장전화: 팩스: e-mail:

**원하는 회비금액(월)**(√표를 해주십시오) □ 10만원 / □ 5만원 / □ 1만원 / □ 5천원 / □ 1천원 / □ 기타 원

**회비 납부방법** □ 자동이체 / □ 지로 / □ 일시불 / □ 기타 ( )

**후원 내용** □ 사업후원 / □ 운영후원(법인운영지원)

본인은 '사랑의 친구들' 이 되어 우리사회와 세계 각 지역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고, 인권, 평화, 자연을 지키고 사랑하는 생활과 일을 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랑의 친구들 귀중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6-11
서울빌딩 520호
Tel : (02)777-5075~6
Fax : (02)778-0177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 사랑의 친구들

2005년 6월 / 통권 제 20 호

## 사람살이의 본질은 섬김과 나눔

이 종 옥 ('사랑의 친구들' 이사)

내가 '사랑의 친구들' 과 함께 한지도 어느덧 8년여가 지나갔다.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돌이켜보니 아쉬움이 많다. 과연 나는 그동안 얼마만큼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가갔으며 스스럼없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을까? 부끄럽기 그지없다.

나는 '사랑의 친구' 가 출범할 때부터 참여하여 회의나 행사에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힘을 보태려고 애를 썼다. 해마다 한차례씩 열리는 모금바자회에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에 연루되어 고난을 같이했던 피고들의 가족인 '5.17 가족' 명의로 참가했다. 한과를 직접 빚어 팔고 오미자차와 커피 등 여러 가지 음료도 직접 끓여 팔았다. 한과를 만들기 위해 몇일 낮 밤을 지새며 잠을 설치기도 했다. '5.17 가족' 들이 우리 집에 모여 함께 한과를 빚는 등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여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 해마다 구정을 기해 실시한 떡국나누기 운동에도 성의껏 참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컸다. 궁리 끝에 나는 우선 내 가족들을 이 떡국나누기 운동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남편, 아들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들 모두에게 이 운동에 함께 해 줄 것을 권했다. 가족들은 기꺼이 동참해 주었다.

나는 손녀만 셋인데 이제 겨우 두 돌밖에 안된 태연이 몫은 제 어미가 대신 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친손녀 채운이와 초등학교 1학년인 외손녀 해준이는 자기들이 아껴 모아 두었던 용돈에서 3만원 하는 떡국나누기 한 구좌씩을 스스로 기쁘게 내놓았다. 더욱이 채운이는 떡국 바구니를 만드는 작업과 배달하는 일에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켰다. 채운이는 최연소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내게는 기쁘게 봉사하는 손녀의 모습이 대견하고 그리도 예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채운이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려운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나서 가슴으로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그 후로 채운이는 '사랑의 친구들' 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지금도 소식지나 사진이 오면 무척 반가워하고 열심히 읽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나는 채운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고 효율적인 교육은 어른들이 말로서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게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임을 절감한다.

섬김과 나눔은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 아닐까? 혼자서 사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고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살이의 본질인데 함께 사는 가장 바른 길은 섬김과 나눔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섬김과 나눔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공허한 말장난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랑의 친구들' 의 섬김과 나눔의 실천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번져나감으로써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 나눔의 숲 체험교실

# 공부방 어린이, 자연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

'사랑의 친구들'은 한국 녹색문화재단과 함께 공부방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의 숲 체험교실을 열었다. 지난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산음휴양림에서 열렸는데 인천지역 부평, 삼산해오름, 민들레, 송현샘 공부방 어린이 76명이 참여하였다.

자연과 함께하기 어려웠던 공부방 어린이들이 푸른 숲에서 풍물, 숲속 활동,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음껏 펼친 시간이 되었다. 한국녹색문화재단 홍수장 대리외에도 풍물은 풍물패들이 지도하고 숲속활동은 숲 해설가 선생님 5분이 소 그룹으로 나뉘어 숲속 보물찾기, 맨발로 숲속 느끼기, 숲에서 찾은 자연물로 자기 사진을 거는 액자만들기, 화분 만들기를 하는 등 많은 전문가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힘써주었다. 오는 10월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숲과 계곡 산책로를 잊을 수가 없어요

5월26~27일 숲체험을 너무나 좋은 곳으로 다녀올수 있어서 좋았어요. 맑은공기가 가득한 휴양림에서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숲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만족하고 좋아했습니다.

자연속에서의 식사도 꿀맛이었어요...

통나무 숙소에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밤에 하늘을 보니깐 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얼굴로 다 떨어질것 같아서 한참이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추적놀이도, 숲에서의 풍물놀이도, 나무액자 만들었던 것들과, 화분만들기 또 승부를 위한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정말로 숲과 계곡 산책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가슴이 뛰어요.

박해정 (삼산 해오름 공부방)

## '2005년 빈곤지역아동 연합캠프'

# 총160개 공부방 2,570명의 어린이들에게 캠프의 기회를

| 단체명 | 지역 | 참여기관 | 참여인원 | 사업명 |
|---|---|---|---|---|
| 인천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연합회 | 인천 | 11 | 250 |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여름들살이 '2005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
| 안양,군포지역 공부방 연합회 | 안양, 군포 | 10 | 180 | '하얀 눈밭에서 전통놀이로 벗이 된다. – 안양·군포지역공부방 신나는 겨울전통놀이체험' |
| 제주공부방협의회 | 제주 | 9 | 200 | '느끼자! 자연의 숨결을, 나누자! 희망의 소리를' |
| 부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 부산 | 9 | 180 | 부산 아이들의 '신나는 신토불이 문화' 체험캠프 |
|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 서울 | 14 | 112 | 광복 60주년 맞이 공부방 아이들의 통일기행 국토순례 '통일의 바람 불어라~' |
| 아산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준비모임 | 아산 | 8 | 248 | '얘들아, 갯벌에 가자! (갯벌 생태 캠프)' |
|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강원권역 | 강원 | 15 | 180 | '사랑 하나 희망 둘' |
| 울산지역아동센터 24개 공부방 | 울산 | 24 | 100 | '어린이 자연캠프' |
| 전남광주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 전남, 광주 | 17 | 380 | '2005 전남광주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연합캠프' |
| 부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 부천 | 20 | 300 | 환경 감수성 키우기 자연캠프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벌레야 놀자!' |
| 경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 경남 | 16 | 300 | '꿈꾸는 아이들의 세상!' |
| 광주지역가톨릭청소년공부방연합회 | 광주 | 7 | 140 | '이마에 땀방울 송알송알' |
| 총 계 | | 160 | 2570 | |

(사)'사랑의 친구들'은 작년에 이어 빈곤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5개 이상의 공부방이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연합캠프를 공모하였다.

2005년 여름과 겨울에 진행할 캠프로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총 12개 연합체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과 캠프의 내용은 위와 같다)

빈곤·실직·결손 가정의 아동들은 대체로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학습능력이 뒤떨어져 어느 집단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린이들이 캠프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연합 캠프 프로그램이다. 공부방이 연합한 연합 캠프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캠프준비의 어려움을 효율화하고 개별공부방은 진행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능케 한다.

또 공부방 아동 및 각 기관간의 공동 네트워크로 다양한 협조체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 이번 공모사업의 의미가 있다.

### 여름방학 사전캠프 교육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캠프교육이 전국재 박사(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소장, 서울여대 겸임교수)와 우영숙 박사(수석연구원, 서울여대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6월 21일(화)부터 24일(금)까지 화성 청려수련원에서 열린다.

<table>
<tr><th></th><th>첫 째 날</th><th>둘 째 날</th><th>셋 째 날</th><th>넷 째 날</th></tr>
<tr><td>07:00</td><td rowspan="5"></td><td colspan="3">기상·세면·아침산책</td></tr>
<tr><td>08:00</td><td colspan="3">아 침 식 사</td></tr>
<tr><td>09:00</td><td rowspan="3">효과적 의사소통 실습 1 communication games</td><td rowspan="3">효과적 의사소통 실습 2 communication games</td><td>닫는 모임</td></tr>
<tr><td>10:00</td><td rowspan="13"></td></tr>
<tr><td>11:00</td></tr>
<tr><td>12:00</td><td rowspan="2">접수·숙소 배정 / 점심식사</td><td colspan="2">점 심 식 사</td></tr>
<tr><td>13:00</td><td colspan="2">자 유 시 간</td></tr>
<tr><td>14:00</td><td rowspan="2">연합캠프(3차) 약정식 만나서 반가워요</td><td rowspan="3">작은 운동회 (축구·족구·배구 등)</td><td rowspan="3">모험·협동놀이 (Adventure Challenge Therapy)</td></tr>
<tr><td>15:00</td></tr>
<tr><td>16:00</td><td>관계형성 놀이</td></tr>
<tr><td>17:00</td><td colspan="3" rowspan="2">저 녁 식 사</td></tr>
<tr><td>18:00</td></tr>
<tr><td>19:00</td><td rowspan="3">만남과 사귐 (stunt)</td><td rowspan="3">사회극 실습 (소시오드라마)</td><td rowspan="3">우리들이 만드는 축제·상황극</td></tr>
<tr><td>20:00</td></tr>
<tr><td>21:00</td></tr>
<tr><td>22:00</td><td colspan="2">하루를 보내며(촛불 모임)</td><td>hot seat</td></tr>
</table>

2005년 사업설명회 및 에니어그램 교육 보고서

# 좋은 교육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와 너무 아름다운 장소에서 좋은 분들과의 만남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우리 어린친구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들도 성숙한 공부방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행복해질수있다면… 그들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한매억 (원미공부방)**

매번 느끼지만 현장중심으로 준비해주시는 '사랑의 친구들' 배려와 수고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강사선생께도 전해주세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열강에 감사를 드려요. 늘 느끼지만 편안하고 좋은 시간들을 위해 애써주신 사무총장님과 센스있는 이경원선생, 그리고 두분 선생님! 2박3일이 참으로 짧았던것으로 느껴질만큼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꼭 고급과정을 '사랑의 친구들'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에서 묵묵히 열심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친구들' 과 함께…

**전민수 (나눔의지역복지선교센터)**

꼭 필요한 교육과 충실한 강의, 성의 있는 '사랑의 친구들' 의 기획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앉아만 있기도 힘든 시간을 열강으로 수고해 주신 신미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영 (한우리 공부방)**

한번더 강의를 들으니 내 주변의 아이들과 나를 더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로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해야겠지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신미영 선생님과 모든 수고를 하시고 여전히 편안함 으로 다가오는 '사랑의 친구들' 에게 감사 드리며 이런 좋은 교육의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경란 (사랑의 공부방)**

작년에 지역에서 에니어그램을 접했을때 별 흥미가 없어 이번 교육은 기대하지 않고 참석을 하였으나 이번 교육은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한 것임을 느꼈습니다. 남을 알기 이전에 나를 먼저 알게 되었고 타인의 언행도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몇 차례 다 듣고 싶습니다. 교육을 마련해 주신 '사랑의 친구들' 과 신미영강사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여했던 많은 선생님들과도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뵐 수 있겠지요? **김민숙 (밀알공부방)**

안녕하세요.. '사랑의 친구들' …

처음으로 받아보는 에니어그램 교육을 통해서 공부방 아이들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을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신 '사랑의 친구들'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시간을 열정으로 강의해주신 강사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받기 위해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앞으로 좀더 에니어그램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겠습니다. 공부방 교사들에게 더 없이 좋은 교육 이었습니다.

**임종기 (꿈꾸는씨앗 지역아동센터장)**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간 화성시 청려수련원에서 '사랑의 친구들' 2005년 사업설명회 및 에니어그램 교육이 있었다. 사업설명회는 올해 처음 열린 것으로 2005년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파트너 단체의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중에서 공부방 선생님들이 보낸 에니어그램 교육후기 그리고 본회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질의와 답변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www.friends.or.kr을 자주 방문하세요.** **(설명회 질의 응답 중 발췌)**

**Q1.** 연합회 차원에서 '사랑의 간식나누기' 신청이 가능한가?

- 본회는 개별공부방 단위로 신청을 받고 지원하고 있으나 지방공부방의 경우 신청은 개별적으로 하되 선정 후 간식 운반은 연합하여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진행 하고 있다.

**Q2.** 이전에 '사랑의 간식 나누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재신청이 가능한가? 또 지난 기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

- 신청기관이 많다보니 이전에 지원 받았던 기관은 일정기간 동안은 재 지원이 어렵다. 지난 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있다.

**Q3.** 사랑나누기의 간식은 어떻게 운반되어지나?

- 지원받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이 될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배달 해준다.

**Q4.**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차량을 지원해 주는 지원자가 없고, 차량은 공부방 자산관련 문제로 지원이 쉽지 않다.

**Q5.** '사랑의 책 나누기' 는 중복신청이 가능한가?

- 피드백 등의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

**Q6.** 년 20회 Mr. Pizza초청이 무엇인가?

- 'Mr. Pizza 피자나누기' 사업에 참여하는 공부방 중에 20개 공부방이 선정되어 각 공부방당 1회씩 년 20회 초청을 받아 매장을 방문하게 된다.

**Q7.** '공부방어린이와 전문상담사의 만남' 사업이 경남 외진 곳의 어린이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나?

- 모든 지역의 공부방 아이들에게 기회는 있겠지만 현재는 한국 심리상담연구소의 전문상담사 분(자원봉사자)들이 교육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된다.

**Q8.** 정부의 인가를 받아 지원을 받고 있는 공부방도 '사랑의 책나누기' 책 지원이 가능한가?

- 정부의 지원현황 등이 기준이 아니라 빈곤지역의 아동들 현황 위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필수적인 지원자격은 ① 설립 된지 6개월 이상 ② 실적이 있고 빈곤지역아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공부방이다.

**Q9.** '사랑의 책나누기' 신청 후 현재까지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나?

- 한번 신청한 후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 지원의 팁**

본회의 공부방 관련 모든 사업은 본회와 공부방의 꾸준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다. 늘 관심을 갖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여 본회의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본회와 공부방의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5년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 방문 행사

# 귀한 섬김을 보여주신 많은 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사)'사랑의 친구들'이 매년 벽지 어린이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행사를 갖는데 올 해로 6번째를 맞이했다. 올해의 초청 어린이들은 경남과 전남의 공부방 어린이들로, 4월 27일(수)-29일(금), 2박3일간 81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초대된 공부방은 경남 하늘바라기, 두량, 영오, 지리산 평화, 자연 공부방, 그리고 전남에서 우수영, 낙원, 샘터, 영남, 겨자씨 공부방으로 총 10개. 어린이들을 위해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숙소와 식사를 후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나라사랑 어머니회'에서 초청비용을 지원했으며 친교의 시간에 송인숙 총회장, 워싱턴 D.C. 김숙자 지회장, 이희숙 서울지부 총무가 함께 하였다. 서울 올림픽 파크텔과 나라사랑어머니회는 이날 아이들과 '사랑의 친구들'이 마련한 감사패를 받았다. (주) 모나미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학용품 세트를, 교사들에게는 고급 볼펜 세트를 지원했다.

이날 김성수 회장은 어린이들에게 "달리기 도중에 잠든 토끼를 깨워서 함께 달리는 거북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8일에는 뚜레주르의 제빵사들과 직접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어보는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었다. 마지막 날인 29일은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은 이번 방문에 대한 어린이들의 소감 중 일부를 소개한다

### 한강 유람선 탑승

★ 63빌딩을 유람선에서 보아서 좋았다.
★ 각기 다른 대교가 인상적이었다.
★ 유람선을 타니 한강을 달리는 것 같았다.
★ 유람선에서 본 것들이 아름다웠다.
★ 물이 튀기긴 했지만 시원한 강바람이 부니 기분이 좋았다.
★ 기분이 좋았다. 한강이 바다 같다.

### 에버랜드

★ 동물원에 갔을 때 백호와 북극곰이 멋 있었다.
★ 바이킹, 회전목마, 배도 타서 재미있었다.
★ 사람이 너무 많아 놀이기구를 다 타지 못해 안타까웠다.
★ 지구세상을 봐서 재미있었다.
★ 360도 회전하는 것을 타서 어지러웠지만 신나고 재미있었다.

### 아쿠아리움 관람

★ 상어가 있어서 무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했다.
★ 신기한 물고기들도 많이 보고 처음으로 상어를 보아서 좋았다.
★ 직접 만져도 보고 시원해서 좋았다.
★ 많은 어류들을 보고 동물모양의 장난감도 구경했다.
★ 내가 바다에 온 것 같았다. 바다 관광을 했다.

### 올림픽기념관

★ 올림픽 경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올림픽에서 우승했던 선수들을 알게 되었다.
★ 우리나라 선수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
★ 입체영화도 보고 해서 재미있었다.

### 전쟁기념관 관람

★ '전쟁을 할 때 이런 옷을 입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 배울 것이 많아서 좋았다.
★ 우리가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 용감하게 싸운 모습이 멋있었다.
★ 6.25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다.
★ 실제로 거북선을 보아서 신기했다.

### CJ(주)에서 경험한 베이킹 프로그램

★ 빵과 쿠키를 처음 만들어 보아서 기분이 좋았다.
★ 어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 제빵사 선생님이 친절해서 이시간이 가장 추억에 남을 것 같다.
★ 내가 직접 만들어 먹으니까 더 맛있었다.

### 연세대 레크리에이션팀과 함께

★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
★ 마술을 할 때 종이가 없어져야 하는데 뒤에 숨겨 아주 웃겼다.
★ 앞에 나가서 이상한 춤도 추고 학용품선물도 받고 해서 좋았다.
★ 피곤한게 없어졌다.
★ 선생님들이 참 재미있고 선물도 모두 줘서 섭섭하지도 않고 즐거웠다.

### 숙소와 식사

★ 맛있게 밥을 먹어서 좋았다.
★ 식사도 맛있고 숙소 시설이 '따봉'이었다.
★ 숙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과 침대 등이 좋았다.

▲ 본회 김성수 회장과 송인숙 나라사랑어머니회 총회장

# 외동아들, 자원봉사 통해 게으른 천성 바꿔

문 경 란 (중앙일보 정책사회부차장 / 여성전문기자)

올해 고 1이 된 아들은 외동이다. 흔히 형제 없이 자라는 아이는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들은 천성이 착해 자기만 아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좀 게으른게 탈이었다. 몸이 굼뜨고 움직이길 싫어했다.

"저 녀석을 어떻게 고쳐야하나." 잔소리나 혼찌검으론 소용이 없을 성 싶었다. 걱정만 하다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참 신통한 곳에서 해결책이 나왔다. 2000~2002년 가족이 미국에 살면서 그곳 학교를 다니게 된 아이는 한달에 1~2시간 수업 시간 중에 자원봉사를 하도록 돼 있었다.

5학년이던 아이는 같은 학교의 저학년을 돌보는 일을 했다.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아주기를 했다. 처음엔 성가시게 여기는 듯 했지만 말귀를 알아듣는게 신기했던 모양이었다. 집에 오면 그날의 자원봉사를 신나게 얘기했다.

나는 굼뜬 아이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기로 작정했다. 마침 앞집에는 유학생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1살, 4살 된 형제를 키우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앞집 동생들을 데리고 놀면 여행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계획에 있던 여행이지만 이 참에 아이의 습관을 고쳐보자 싶었다.

전략은 적중했다. 개구쟁이를 돌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엎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사고 나지 않게 주의해야하고 형이 좋다며 매달리고 올라타니 몸이 잽싸질 수 밖에.

재미가 붙은 나는 한술을 더 떴다. "자원봉사는 멀리서만 하는게 아니야. 엄마가 공부와 집안일로 바쁘니 엄마를 도우는 자원봉사를 해보자"

나는 아들에게 '터프(tough) 웨이터'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열심히 부려(?)먹었다. 청소년기의 남자 아이에 비해 곱기만 했던 아들은 '터프 가이'라는 말을 좋아했다. "헤이! 터프 웨이터, 숟가락 놓고 국 갖다 날라! 세탁기 좀 돌리지."

아들은 갈수록 부지런해졌다. 주문의 수준도 날로 높아져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버리기, 시장 본 물건 나르기 등으로 이어졌다. 주변의 한국 엄마들로부터 "좋은 사윗감이야"란 말도 들려왔다.

귀국후 아들의 자원봉사는 학교의 의무시간 채우기로 이어졌다. 하지만 무늬만 자원봉사일 때가 많아 안타까웠다.

마침 지난해에 직장에서 아름다운 가게 1일 운영을 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으로 아들의 힘을 쪽 빼놨다. 지친 듯 했지만 귀가 길의 아들의 표정은 밝고 환했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자원봉사를 한다고 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 보람의 노동이 사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아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한 나는 자원봉사 예찬론자가 됐다.

부끄럽게도 실천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다져먹는다. "퇴직만 해봐라. 나도 자원봉사하며 노후를 보낼 거다"라고.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서 회원기증품 팔아 전액 기증

# 30년간의 겨자씨의 사랑, 이싹회

1998년 5,184,000원, 1999년 3,059,800원, 2000년 6,076,140원, 2001년 4,709,450원, 2002년 4,810,800원, 2003년 4,0182,210원,2004년 2,323,130원...

이싹회가 지난 7년간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서 회원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팔아서 기증한 금액이다. 첫해에는 다른 기증품들과 함께 판매하여 금액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이싹회 회원들의 기증한 물품만을 직접 판 금액이다.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서 코끼리장터를 열고 있는 이싹회 회원들

아나바다 장터에 와 본 분 들은 아실 것이다. 천원대의 물건들을 팔아서 이 금액을 만들기까지 그 물건들을 찾아내고 모으고 보관하고 운반해서... 팔리기까지의 과정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이 장터에서 모인 금액은 그러므로 단순한 기증액으로 보기 어려운 진정한 이웃 사랑의 징표인 금액이다.

이싹회 박원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 자리 역시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파는 장터 장소였다. 이싹회는 봄과 가을에는 회원들 대상의 장터나 이벤트를 열고 있다.

이싹회는 이화유치원의 자모들에 의해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누자는 봉사의 마음으로, 지난 1975년 1월에 만들어졌다. 소박하게 시작한 모임이지만 지난 30년간 매해 새로운 회원을 받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와 고아원 등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도시락싸기, 간식만들기, 우편물 발송까지 궂은 일들을 매달 꾸준히 기별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모임이다.

특히 이 봉사를 위해 직접 자신의 도시락을 싸오는 등 준비비용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또 베트남과 필리핀의 아동에게까지 10년이 넘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7년동안 봉사한 안양 소년 감별소에서는 이싹회 봉사자들이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윤명선 고문은 자랑한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 어떤 나무보다도 넉넉한 나무가 되어 새들의 휴식터가 된다"는 성경말씀의 비유로 박원회장은 이싹회의 기독교적 봉사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이러한 봉사의 30주년을 기념한 행사도 오는 11월 15일 LG 아트센터에서 열 계획이다.

항상 변함없이 작은 곳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이싹회 회원들의 모습은 지난 7년간 변함없이 참여하는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7년간 바자때마다 항상 고생해주신 장예순, 고문자, 이소형, 이숙재, 이남주, 나옥주 선생님! 올해 10월8일, 9일 저희 바자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이 정 원 ('사랑의 친구들' 기획·홍보 부장)

2005. 3. 11 ~ 2005. 6. 10

# (사) '사랑의 친구들' 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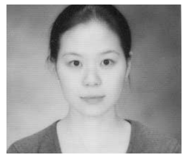
<운영위원회> 제71차(2005. 3. 23), 제72차(2005.4.15), 제73차(2005. 5. 17)
<기획자문위원회> 제38차(2005. 3. 29), 제39차(2005. 5. 16)

<사랑의 간식나누기 8기>
대한항공, 아시아나, 엘에스지 스카이 셰프코리아(주) 제공
10차(3. 15), 11차(3. 22), 12차(3. 29), 13차(4. 12), 14차(4. 19), 15차(4. 26), 16차(5. 3), 17차(5. 10), 18차(5. 17), 19차(5. 24), 20차(5. 31), 추가지원-외국인 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집(5. 4), 경남지역아동센터 연합회(5. 17), 보사노인복지센터(5. 24), 용운지역아동센터, 신일지역아동센터, 유천지역아동센터, 소망지역아동센터, 산서지역아동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꿈꾸는씨앗지역아동센터, 청주북부자역아동센터 새터공부방, 서해아이들, 방과후 푸른교실, 강화우리마을(5. 31-6. 2)

<Mr. Pizza와 함께 하는 'Mr. Big Brother' >
3. 19 홈페이지 개편
3. 23 매장초청행사 - 강서밝은공부방/발산점
3. 24 매장초청행사 - 사랑의공부방/밀리오레점
3. 31 아동후원금(3월분) 총100명에게 500만원 송금
4. 27 2차 피자배달 - 총 19개 기관
4. 27 아동후원금(4월분) 총100명에게 500만원 송금
5. 30 아동후원금(5월분) 총100명에게 500만원 송금
5. 30 매장초청행사 - 희망의 집 공부방/명동1호점
5. 31 매장초청행사 - 낙골공부방/센트럴지점

<빈곤지역 아동 연합캠프(3차)>
3. 28 총 21개 연합체 신청서 접수
3. 29 심사회의
4. 12~14 기관 실사
4. 16 계수조정회의
4. 18 총 12개 연합체 선정 (3페이지 참조)

<새식구를 소개합니다> 사무국 새직원



(좌) 이희경
(우) 김유미

<사업설명회 및 에니어그램 교육>
4. 6~8 : 장소-청려수련원
: 참여자-설명회31명 / 교육33명(전원 수료)

<공부방 어린이와 전문상담사와의 만남>
4. 6 총 11개 공부방 선정
4. 14 오리엔테이션
4. 22 준비물 구입비 및 간식비 총 110만원 지원

<지방공부방 어린이 서울방문>
4. 27~29 경남·전남지역공부방 총 93명 참여(어린이 83명/교사 10명)
4. 29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에 보도

<한국녹색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나눔의 숲 체험교실' >
5. 26~28 장소 : 양평 산음휴양림
참여기관 : 부평, 산해오름/송현샘, 민들레 공부방(인천지역)
참가자 : 총 85명(어린이 76명/교사 9명)

<이주 노동자 자녀 지원>
4. 16 토론회 개최
5. 7 이주노동자 자녀 지원 관련 기관 답사

<북한어린이 돕기>
5. 27 제 1차 소위원회 개최

<기타>
5. 3 이재원씨 200만원 후원금 수령

**정정합니다.** '서울지역 공부방 연합회' 가 지난호에 '아동센터연합회' 로 잘못 기재되었음을 정정합니다.

신입회원가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신입회원
황덕란, 황원미, 이선옥, 최기순, 이문승, 김동완, 예지투자개발(주)

### '사랑의 간식나누기' 9기 1차(2005년 7월~12월) 선정기관(총 34개소 확정)

• 이웃사랑공부방 • 새롬공부방 • 군포희망나눔터 기쁨공부방 • 갈릴리공부방 • 안민공부방 • 안양사랑공부방 • 영림공부방 • 우리공부방 • 구세군 아산지역아동센터 • 나누미공부방 • 다니엘공부방 • 인주공부방 • 꿈자리공부방 • 온양농아인교회공부방 • 한나공부방 • 헤비타트지역아동센터 • 반석열린공부방 • 지역아동센터 해누리공부방 • 꿈쟁이지역아동센터 • 월봉어린이문화센터 • 우리동네공부방 • 지역아동센터 자람터 • 범서어린이·청소년 문화센터 • 수암어린이문화센터 • 해봄공부방 • 엘림공부방 • 예닮공부방 • 해운대청소년자활지원관 햇살마루공부방 • 평강지역아동센터 • 새소망공부방 • 꿈샘공부방 • 새날지역아동센터 • 꿈마을지역아동센터 • 꿈터공부방 •





## 대한항공·아시아나의 맛있는 쥬스와 땅콩간식

# 지난 4년간 총197개기관 5천 4백여 어린이가 혜택누려

기내식을 빈곤지역의 공부방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간식나누기' 4주년 감사모임이 6월 28일(화) 오전 11시 우당기념관에서 열린다.

지난 4년간 6개월이상씩 주스와 땅콩, 과자, 사탕 등을 매주 정기적으로 받는 혜택을 누린 공부방은 전국적으로 총 197개 기관이며 어린이들은 5천4백명에 이른다.

존경하는 '사랑의 친구들' 대표, 직원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맛있고 질 좋은 쥬스, 땅콩, 생캔디, 컵라면, 비스켓을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M.F 이후 영도의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바다가 생존장소인 어민들이 많았는데 어업협정으로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 여파로 부모님의 가출, 이혼으로 인해 한순간에 가정이 해체되어 버림받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어린이들이 늘었습니다. 그로인해 한번도 학원교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가정교육, 부모의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했고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단칸방에서 아니면 여인숙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며 지내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이 간식은 신기하고 가장 소중한 처음 먹어보는 먹거리입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어도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처음 먹여 보이는 제대로 된 간식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서 꼭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며 이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한 훌륭한 인물들로 키우겠습니다. 보답할 줄 아는 아이, 사랑 할 줄 아는 아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 나눌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영양 많은 간식으로 인해 살도 많이 쪘고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효정 (부산 영도구 꿈나무공부방)

'사랑의 간식나누기' 연도별 물품후원내역

| 연 도 | (주)대한항공 | (주)아시아나항공 | 합 계 | |
|---|---|---|---|---|
| 2001년 | 23,595,988원 | 11,256,372원 | 34,852,360원 | |
| 2002년 | 125,029,302원 | 29,433,750원 | 154,463,052원 | 기물추가 지원 |
| 2003년 | 43,316,275원 | 42,672,000원 | 85,988,275원 | |
| 2004년 | 30,014,145원 | 20,341,000원 | 50,355,145원 | |
| 계 | 221,955,710원 | 103,703,122원 | 325,658,832원 | |